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불교어계 한자어에 대하여

이경현 *

1. 서론
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불교어계 한자어 비교
- 2.3. 의미적 측면
- 2.1. 음운적 측면
- 2.2. 형태적 측면
3. 결론

1. 서론

한국과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인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지만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양국은 옛날부터 중국에서 한자와 한자어를 많이 수용해 왔다. 한국에서는 한자가 오늘날까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1945년¹ 이래 국자(chữ quốc ngữ)가 한자를 대체하여 공식적인 문자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대부분이 한자를 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한자가 폐지된 후부터 한자와 한자어를 아는 사람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漢喃(Hán Nôm) 또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아는 사람 외에 한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베트남인은 베트남에 있는 유적지나 사찰에 갈 때 거기에 쓰여져 있는 한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고대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한자로 작성된 수많은 문헌들이 있으나 오늘날 베트남 젊은이들이 대부분 조상의 문헌을 읽지 못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데에 장애가 될 지도 모른다.

* 베트남 호찌민시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과 인하대학교 박사과정생

¹ 호찌민(胡志明) 주석은 1945년 9월 2일에 베트남 하노이 Ba Dinh 광장에서 독립 선언문을 읽은 후에 베트남 민주주의공화국이 설립되었다.

불교는 한국과 베트남의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교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불교 신자 수가 49,690,000명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불교 신자 중에서 국가별로 4번째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 불교 신자 수가 10,920,000명에 달하고 세계적으로 7위이다.² 그래서 불교 문화는 한국과 베트남 신앙 문화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불교계 어휘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부분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고유어로 된 불교계 어휘는 있기는 하나 그 수가 많지 않다. 그 원인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과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는 중국에서 한자로 음역·의역된 불교계 어휘가 한국어와 베트남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본고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불교어계 한자어휘를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음운적, 형태적 그리고 의미적 측면에서 이러한 한자어를 살펴보겠다.

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불교어계 한자어 비교

2.1. 음운적 측면

불교는 중국을 거쳐 한국과 베트남으로 유입되었으므로 한-베 양국 불교어계 한자어는 대부분 한자음으로 된 것이다. 중국어에서의 음역되거나 의역된 어휘의 구성 요소는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휘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 수용되었을 때부터 음운적 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한글로, 베트남에서는 국자로 표기되어 있다. 음독은 유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유지되어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국어에서나 베트남어에서 음운적 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있다.

2.1.1. 음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모두 음운적 변화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음역된 어휘는 袈裟(가사, cà sa, kasaya), 彌勒(미륵, di lặc,

² 세계적으로 불교 신자가 많은 국가 순위는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한국, 대만, 캄보디아, 인도이다.

(<http://www.quangduc.com/quocte/01pgkhaptg-tindo.html>)

maitreya), 舍利(사리, xá lợi, sari), 刹那(찰나, sát na, ksana, kshana) 등이 있다. 의역된 어휘는 光明(광명, quang minh), 大衆(대중, đại chúng), 世界(세계, thế giới), 여래(如來, như lai), 慈悲(자비, từ bi), 衆生(중생, chúng sinh), 破戒(과계, phá giới), 虛空(허공, hư không), 玄關(현관, huyền quan)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어휘들은 수용될 때부터 오늘날까지 음독이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유지되어 있고 음운적 변화가 없다.

2.1.2. 음운적 변화가 일어난 경우

한국 불교와 베트남 불교의 유입 경로는 주로 중국을 통해 양국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유입 초기에는 소승 불교는 인도에서부터 남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베트남으로 유입된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어에서는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된 일부 불교계 어휘에 대한 음역된 단어가 형성되어었다.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어의 ‘buddha’는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 ‘bụt’으로 표음되었고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bụt’이라는 인물은 ‘Tám Cám’(싸라기와 쌀겨) 등 옛날 이야기 등에 등장하였으나 ‘bụt’이라는 말은 오늘날 잘 쓰이지 않는다. 베트남의 소승 불교에서는 ‘bụt’이 희고 긴 머리와 수염이 있는 신선으로서 좋은 사람을 도와주고 악한 사람을 징벌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bụt’이라는 고유어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phật’(佛)이다. 4-5세기부터 중국에서 유입된 대승 불교의 영향으로 ‘bụt’이라는 말은 점점 사라졌고 ‘phật’(佛)으로 대체되었다. 중국어에서는 ‘buddha’는 처음에 ‘佛陀’로 표기되었는데 이후 ‘佛’으로 줄여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어의 경우 오늘날 고유어인 ‘부처’(부처 < 부처 < 부터)³는 한자어인 ‘불타’(佛陀)보다 널리 쓰이고 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산스크리트어		한국어	베트남어
buddha	한자어	불타(佛陀)	phật(佛) < phật đà(佛陀)
	고유어	부처 < 부처 < 부터	bụt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어에서는 음운적 변화가 일어났으나 베트남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음운적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

³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어에서는 ‘보리’의 음독이 원래 ‘보제’(보리 < 보제:菩提, 산스크리트어 : bodhi)인데 음운적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보리’가 되었다. 베트남어의 ‘bồ đề’(菩提)는 음운적 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음독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어에서는 성조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cung dưỡng’(供養)은 ‘cúng dường’으로 변했다(cúng dường < cung dưỡng供養). 다시 말하면 현대 베트남어에서 원래 한자어인 ‘cung dưỡng’(供養)이 존재하지 않고 ‘cúng dường’이라는 꼴로 쓰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공양(供養)이라는 한자음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현재 ‘십방’(十方) 대신에 ‘시방’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베트남어의 ‘thập phương’(十方)은 음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부 한자가 한국어나 베트남어에 들어간 후에 두 가지 음독이 생겼다. 양국에 유입될 때부터 발생한 경우도 있고 사용 과정에서 생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正’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한자음은 ‘chính’과 ‘chánh’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八正道와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에서는 ‘bát chính đạo’ 대신에 ‘bát chánh đạo’로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chính’ 대신에 ‘chánh’을 채택한 것이다.

한편, 절단에 의한 약어화 현상 때문에 음운적 변화를 초해할 수 있다. 이는 4음절 이상의 단어나 구에서 앞뒤 음절을 탈락시켜 두세 개의 음절로 줄여쓰는 경우를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고유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 한자어의 대표적 특성의 하나이다⁴. 4음절 불교어계 한자어가 2음절로 줄여 쓰이는 경우는 ‘菩提薩埵’가 ‘菩薩’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같은 양상을 보인다.

산스크리트어	한국어	베트남어
Bodhisattva	보리살타(菩提薩埵) ↓ 보살(菩薩)	bồ đề tát đỏa(菩提薩埵) ↓ bồ tát(菩薩)

특히 한국어에서는 ‘미륵보살’(彌勒菩薩)은 4음절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에서는 3음절로 줄여 쓰이며 ‘bồ đề tát đỏa(彌勒菩薩)’ 중의

⁴ 노명희(1998:788).

‘bồ tát(菩薩)’은 ‘phật(佛)’로 대체되었고 베트남어 어순대로 ‘phật(佛)’은 ‘đi lặc(彌勒)’ 앞에 나온다. 다시 말하면 현대 베트남어에서는 ‘phật đi lặc’(佛彌勒) 꼴로 쓰이고 있다.

2.2. 형태적 측면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계 불교어휘는 당초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유입되었을 때 중국어 문법의 조어 규칙대로 한자어로 옮겼다. 이러한 불교어계 한자어휘는 한국어나 베트남어에 들어간 후에 1음절 한자어(業 업 *nghiệp*, 劫 겁 *kiếp*...) 외에 2음절 이상 한자어에 유입 언어의 문법 특징에 맞추어 일정한 변경이 일어났다. 한자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2음절 불교어계 한자어

중국문어계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2음절 불교어계 한자어휘는 1음절이나 3음절 이상 불교어계 한자어휘에 비해 수량이 훨씬 많다. 이런 경우의 불교어계 한자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한자 순서가 대부분 같다. 예를 들면 功德(공덕, *công đức*), 大悲(대비, *đại bi*), 煩惱(번뇌, *phiền não*), 法界(법계, *pháp giới*), 佛教(불교, *phật giáo*), 佛道(불도, *phật đạo*), 三業(삼업, *tam nghiệp*), 西方(서방, *tây phương*), 緣起(연기, *duyên khởi*), 輪廻(윤회, *luân hồi*), 因果(인과, *nhân quả*), 眞實(진실, *chân thực*) 등이 있다.

- 3음절 이상 불교어계 한자어

이 경우 한국어의 수식어-피수식어 구성이 중국어와 동일하므로 불교어계 한자어는 한국어에 수입된 후에 한자 순서가 절대다수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어에서는 피수식어-수식어 구성으로 특수한 경우 외에 3음절 이상 불교어계 한자어의 한자 순서가 대부분 베트남어의 조어 규칙대로 바뀌어야 했다.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일부 어휘는 베트남어에서 비통사적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한자 순서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다.

2.2.1.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한자 순서가 같은 경우

한자어	한국어	베트남어
四聖諦	사성제	tứ thánh đế
八正道	팔정도	bát chánh đạo
金剛乘	금강승	kim cương thừa
大慈大悲	대자대비	đại từ đại bi
西方極樂	서방극락	Tây phương cực lạc
觀世音菩薩	관세음보살	Quan thế âm bồ tát
大勢至菩薩	대세지보살	Đại thế chí bồ tát

표에서 보듯이 이런 한자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구조적 순서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四聖諦(사성제, tứ thánh đế)’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四眞諦(사진제, tứ chân đế)’, ‘四諦(사제, tứ đế)’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베트남에서는 이와 같은 말인 ‘tứ diệu đế(四妙諦)’는 제일 널리 쓰이고 있다. ‘八正道(팔정도, bát chánh đạo)’에 해당하는 말은 ‘八聖道(팔성도, bát thánh đạo)’이다. ‘大慈大悲(대자대비, đại từ đại bi)’, ‘西方極樂(서방극락, Tây phương cực lạc)’은 양국에서 같은 한자 순서가 유지되어 있다. 그리고 ‘觀世音菩薩(Quan thế âm bồ tát)’과 ‘大勢至菩薩(Đại thế chí bồ tát)’은 주목할 만한 경우이다. 베트남어 문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bồ tát quan thế âm(菩薩觀世音)’, ‘bồ tát đại thế chí(菩薩大勢至)’로 바뀌어야 하지만 베트남어에 유입된 후에도 그대로 유입되었다.

2.2.2.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한자 순서가 다른 경우

한자어	한국어	베트남어
因果律	인과율	luật nhân quả(律因果)
輪廻說	윤회설	thuyết luân hồi(說輪廻)
無我論	무아론	thuyết vô ngã(說無我)
韓國佛教	한국불교	Phật giáo Hàn Quốc(佛教韓國)
大乘佛教	대승불교	Phật giáo đại thừa(佛教大乘)

‘因果律’, ‘輪廻說’ 같은 한자어는 베트남어에서는 해당하는 말이 ‘luật nhân quả(律因果)’, ‘thuyết luân hồi(說輪廻)’이다. 다시 말하면 ‘luật nhân quả(律因果)’, ‘thuyết luân hồi(說輪廻)’ 중의 ‘luật(律)’, ‘thuyết(說)’은 ‘nhân quả(因果)’, ‘luân hồi(輪廻)’ 앞에 나와 ‘luật nhân quả(律因果)’,

‘*thuyết luân hồi*(說輪廻)’의 중심부가 되었다. ‘無我論’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어휘는 ‘*thuyết vô ngã*(說無我)’인데 이 경우 베트남어에서는 ‘論’ 대신에 ‘說’(*thuyết*)가 쓰여져 있다. ‘韓國佛敎’, ‘大乘佛敎’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에서는 해당하는 말이 ‘*Phật giáo Hàn Quốc*(佛敎韓國), *Phật giáo đại thừa*(佛敎大乘)’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경우는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나 옹불할 때 구분없이 그대로 사용되나 베트남어에서는 차이있게 쓰이고 있다. 베트남어의 이런 용법상 차이는 다음과 같은 한자어에 확인할 수 있다.

한자어	한국어	베트남어
阿彌陀佛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i>Phật A Di Đà</i> (佛阿彌陀) <i>Nam mô A Di Đà Phật</i> (南無阿彌陀佛)
釋迦牟尼佛	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i>Phật Thích Ca Mâu Ni</i> (佛釋迦牟尼) <i>Nam mô Thích Ca Mâu Ni Phật</i> (南無釋迦牟尼佛)

淨土宗(*Tịnh Thổ Tông, Tịnh Độ tông*)은 베트남에서 전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종파이다. 아미타 불상은 오래 전부터 많은 곳에서 건립된 불상이다. 곳곳에서 ‘*Nam mô A Di Đà Phật*(南無阿彌陀佛)’이라는 옹불 소리가 들릴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어에서나 베트남어에서 같이 ‘南無阿彌陀佛(나무아미타불, *Nam mô A Di Đà Phật*)’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의 일반적 용법에서는 ‘*A Di Đà Phật*(阿彌陀佛)’로 쓰이지 못하고 ‘*Phật A Di Đà*(佛阿彌陀)’로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Phật*(佛)’는 ‘*A Di Đà*(阿彌陀)’ 앞에 나와야 쓸 수 있다. 釋迦牟尼佛(석가모니불, *Thích Ca Mâu Ni Phật*)은 역시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에서는 옹불할 때는 ‘*Nam mô Thích Ca Mâu Ni Phật*(南無釋迦牟尼佛)’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Phật Thích Ca Mâu Ni*(佛釋迦牟尼)’이다.

이런 용법은 베트남 사찰 간판에 쓰일 때와 일반적으로 쓰일 때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찰 간판에서 ‘*đại hùng điện*(大雄殿)’, ‘*Pháp Vân tự*(法雲寺)’로 쓰이지만 이런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 ‘*điện đại hùng*(殿大雄)’, ‘*chùa Pháp Vân*(chùa法雲)’으로 쓰이고 있다. ‘*Pháp Vân tự*(法雲寺)’ 중의 ‘*tự*(寺)’는 베트남어에서 자립형식인 단일어가 아니라 의존형식인 형태소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해당하는 고유어인 ‘*chùa*’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경우는 ‘gao cúng nhường(gạo 供養, 供養米)’, ‘quan âm nghìn tay(觀音 nghìn tay, 千手觀音)’ 등에도 나타났다.

2.3. 의미적 측면

불교어계 한자어는 중국에서 수용된 후에 오늘날까지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부분적으로 다르거나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서 양국 불교어계 한자어를 동형 동의어와 동형 이의어로 나누어 의미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한국 한자어의 의미 해석은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근거로 하고 베트남 한자어의 의미 해석은 Nguyen Nhu Y 외(2008)의 『베트남어 대사전』을 근거로 한다. 보조적으로 불교사전, <http://www.quangduc.com/tudien> 등을 참고하기도 한다.

2.3.1. 동형 동의어

동형 동의어는 한자어 중에서 한·베 양국 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적 의미가 모두 같은 한자어를 가리킨다. 불교어계 한자어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한자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의미상 차이가 없다.

光明(광명, quang minh), 大悲(대비, đại bi), 大乘(대승, đại thừa), 彌勒(미륵, di lặc), 煩惱(번뇌, phi ên nảo), 法界(법계, pháp giới), 佛道(불도, phật đạo), 삼업(三業, tam nghiệp), 西方(서방, tây phương), 小乘(소승, tiểu thừa), 여래(如來, như lai), 慈悲(자비, từ bi), 眞實(진실, chân thực), 眞空(진공, chân không), 破戒(파계, phá giới), 四聖諦(사성제, tứ thánh đế), 八正道(팔정도, bát chánh đạo)

2.3.2. 동형 이의어

동형이의어는 완전 이의어와 부분 이의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동일한 한자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의미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 발생 원인은 사용 과정에서 양민족의 인식으로 인하여 이의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2.3.2.1. 완전 이의어

동형 한자어 중에서 한·베 양국 사전에 나와 있는 전체 의미가 상이한 한자어를 완전 이의어라고 한다. 불교어계 한자어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한자어는 양국어에서 의미상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點心(점심, *điểm tâm*)’은 한국어에서는 “선원에서, 배고플 때에 조금 먹는 음식”을 이르는 말인데 마음을 점검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베트남어에서는 “가벼운 朝食”(buổi ăn sáng nhẹ)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의 ‘업장(業障, *nghiệp chướng*)’은 “삼장(三障)의 하나인데 말, 동작 또는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른다. 반면에 베트남어의 ‘*nghiệp chướng*(業障)’은 “이 겁(劫)에서 얻은 나쁜 결과는 지난 겁에서 지은 죄악 때문이다”(hậu quả phải gánh chịu ở kiếp này do tội ác ở kiếp trước gây ra) 라는 뜻으로 쓰인다.

2.3.2.2. 부분 이의어

동형 한자어 중에서 한·베 양국 사전에 나와 있는 일부 의미가 상이한 한자어를 부분 이의어라고 한다. 다음은 불교어계 한자어 중에서 한국어에서 의미가 더 넓은 경우, 베트남어에서 의미가 더 넓은 경우,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일부 의미가 달라진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가) 한국어에서 의미가 더 넓은 경우

‘化緣(화연, *hoá duyên*)’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인연. 불보살의 출현은 이 때문이며, 이 인연이 다하면 곧 열반에 든다”라는 의미는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의미 외에 한국에서는 “교화를 받아들일 인연이 되는 중생의 근기(根機)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베트남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苦行(고행, *khổ hạnh*)’은 양국에서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수행을 쌓는 일”을 가리키는데 한국에서는 “절에 거주하면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베트남어에서는 두번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베트남어에서 의미가 더 넓은 경우

‘菩提(보리, *bồ đề*)’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불교 최고의 이상인 불타 정각의 지혜” 그리고 “불타 정각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닦는 도. 불과(佛果)에 이르는 길”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 외에 베트남어에서는 ‘*bồ đề*(菩提)’는 “보리수”를 이르기도 한다.

‘衆生(중생, *chúng sinh*)’은 한-베 양국에서 “모든 살아 있는 무리”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 의미 외에 베트남어에서는 ‘*還生*’(*sự sống chết trải qua nhiều lần, many lives, or many transmigrations*)을 뜻하기도 한다.

다) 양국어에서 일부 의미가 달라진 경우

‘淨戒(정계, *tịnh giới*)’는 “부처가 만든 청정한 계행(戒行) 또는 계법(戒法)”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의미 외에 양국에서 각각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 한국에서는 “비구 오덕(比丘五德)의 하나. 평생 동안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일”을 이른다. 베트남어에서는 “이 계율대로 살면 몸과 마음이 점점 청정해진다”(Sống theo giới luật này thân tâm sẽ dần dần được trong sạch, thanh tịnh)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3. 결론

이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불교어계 한자어를 음운적, 형태적, 그리고 의미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음운적으로는 음독이 유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유지되어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한국어에서나 베트남어에서 음운적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다. 형태적으로는 2음절과 3음절 이상 불교어계 한자어로 나누어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한자 순서가 같은 경우와 한자 순서가 다른 경우를 살펴 보았다. 의미적으로는 양국 불교어계 한자어를 동형 동의어와 동형 이의어로 나누어 의미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관했다. 동형 이의어 중에서 완전 이의어와 부분 이의어로 구분하였다. 부분 이의어는 한국어에서 의미가 더 넓은 경우, 베트남어에서 의미가 더 넓은 경우,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일부 의미가 달라진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한국어 논저

- 광해(1993)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 광해(1998) 「한자어의 의미론」, 이승명 엮음 『의미론 연구의 새 방향』, 박이정
- 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Vol. 29, 국어학회.
- 명희(1998) 「한자어」,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국어학총서 49호, 태학사.
- 노명희(2011) 「국어 한자어의 문법」, 국어학회 학술회의 논문집.
- 박영섭(1995) 『國語漢字語彙論』, 박이정.
- 박영순(2004) 『한국어 의미론』, 고려대학교출판부.
- 송기중(1998) 「語彙生成의 특수한 類型 - 漢字借用語」, 심재기 편 『국어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송기중(1999) 「漢字 文化圈」, 『새국어 생활』 Vol.9, No.2.
- 심재기(1971) 「漢字語의 傳來와 그 起源的 系譜」, 『金亨奎博士 頌壽記念論叢』
- 심재기(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Vol. 8.
- 심재기(1989) 「漢字語 受容에 關한 通時的 研究」, 『국어학』 Vol. 18, 국어학회.
- 안명철, 리깁히엔(2008) 「한-베 한자어 비교연구의 기본방향」, 인하대-하노이 인문사회대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이강로(1987) 「한자어의 기원적 계보」, 『국어생활』 Vol.8.
- 이영주(2000)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익섭(1968) 「漢字語 造語法의 類型」, 『李崇寧博士 頌壽記念論叢』, 乙西문화사.
- 이익섭(1969) 「한자어의 비일음절 단어에 대하여」, 『김재원 박사 회갑기념논총』.
- 이익섭(1986) 『국어학개설』, 학연사.

베트남어 논저

- Bùi Đức Tịnh(1981) 「Từ gốc Hán(한자어)」, 『Giữ gìn sự trong sáng của tiếng Việt về mặt từ ngữ - Tập 2』, 사회과학출판사.
- Bùi Mạnh Hùng(2008) 『Ngôn ngữ học đối chiếu (대조언어학)』, 교육출판사.
- Diệp Quang Ban(2006) 『Ngữ pháp tiếng Việt (베트남어 문법)』, 교육출판사.
- Hoàng Văn Hành, Hà Quang Năng, Nguyễn Văn Khang(2008) 『Từ tiếng Việt (베트남어 어휘)』, Saigon문화출판사.
- Lê Đình Khẩn(2002) 『Từ vựng gốc Hán trong tiếng Việt(베트남어의 한자어)』, 호찌민시국립대학교 출판부.

- Lê Quang Thiêm(2004) 『Nghiên cứu đối chiếu các ngôn ngữ (각 언어에 대한 대조연구)』, 하노이국립대학교 출판부.
- Mai Ngọc Chừ, Vũ Đức Nghệ, Hoàng Trọng Phiên(2006) 『Cơ sở ngôn ngữ học và tiếng Việt (언어학 및 베트남어 개론)』, 교육출판사.
- Nguyễn Lang(1979) 『Việt Nam Phật giáo Sứ Luận(베트남 불교사론, tập III)』, 문학출판사.
- Nguyễn Tài Cẩn(1996) 『Ngữ pháp tiếng Việt(베트남어 문법)』, 하노이국립대학교 출판부.
- Nguyễn Thiện Giáp(1985) 『Từ vựng học tiếng Việt(베트남어 어휘론)』, ĐH & THCN 출판사.
- Nguyễn Văn Khang(2007) 『Từ ngoại lai trong tiếng Việt(베트남어의 외래어)』, 교육출판사.
- Nguyễn Văn Tu(1976) 『Từ và vốn từ tiếng Việt hiện đại(현대 베트남어의 어휘와 어휘부)』, ĐH & THCN 출판사.
- Trung tâm KHXH&NV QG(2002) 『Ngữ pháp tiếng Việt(베트남어 문법)』, 사회과학출판사.

사전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주)두산동아.
- Nguyễn Như Ý 외(2008) 『Đại từ điển tiếng Việt(베트남어 대사전)』, 호찌민시 국립대학교 출판사.
- Viện ngôn ngữ học(언어학연구원, 2006) 『베트남語 辭典』, Da Nang출판사.
- Lê Ngọc Trụ(1993) 『Tâm nguyên tự điển Việt Nam(越南尋源字典)』, H ochiminh City출판사.
- Nguyễn Kim Thân(2008), 『Từ điển Hán Việt hiện đại(現代漢越詞典)』, 사회과학출판사.
- Viện KHXH Việt Nam(베트남사회과학원, 1993), 『Từ điển Trung-Việt(中-越辭典)』, 사회과학출판사.

사이트

- <http://www.quangduc.com/tudien/index.html>
- http://www.hoalinhthoai.com/?option=dict_budd&lang=vn

A Comparative Study On Sino-Korean –Vietnamese Word Of Buddhism Origin

Abstract

The paper generally consider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 phonological, morphological and semantic aspects of Sino-Korean words and Sino-Vietnamese words through the comparison of Buddhism-origin words. Comparisons are mainly made between Sino-Korean words and Sino-Vietnamese words of the same shape (Chinese character). Phonologically, there is case without phonological changes and case of phonological changes in Korean or Vietnamese language. On the morphological aspect, Chinese characters of the same order and different order was surveyed after Buddhism-origin Sino-Korean and Sino-Vietnamese words were divided into 2 and 3 syllabic words. Semantically, Sino-Korean and Sino-Vietnamese words of the same shape were divided into words of the same meaning and different meaning to survey. In which, words of different meaning was classified into words of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and words of partially different meaning. Words of partially different meaning continues to be divided into (i) Sino-Korean words with broader meaning, (ii) Sino-Vietnamese words with broader meaning, and (iii) words with intersectional meaning in these two languages

Keywords: Sino-Korean word, Sino-Vietnamese word, Buddhism-origin word

